

북핵 문제·원자력협정 개정·FTA 논의

朴대통령 방미,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이건희 회장 등 경제사절단 52명 사상 최대 규모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 취임 후 첫 해외 정상외교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각) 뉴욕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 뒤 엿새 동안 위성타운과 로스엔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 60주년과 한반도 안보위기를 맞아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는 물론 외교·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발전 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광주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고,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갖는다.

윤정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다시 말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이다.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이면서도 미국 의회 초청을 받아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워싱턴에서는 알링턴 국립묘지 및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 김용 세계은행총재 접견,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 경제사절단과 조찬,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라운드테이블 오찬 등 행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체류지인 LA에서는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 안토니오 비아리이고사 LA시장 주최 오찬 등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반도 안보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도 한다.

이를 위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여성기업인, 노동계 대표 등 총 5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계가 총동원해서 미국에서 우리 경제를 알리는 것”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성공단 단전·단수는 안해

정부, 北에 1300만달러 지급… 7명 귀환

2012년도 기업 소득세 400만 달러, 통신료·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 달러 등 1300만 달러(한화 142억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측 인원의 조기 귀환에 중요하다고 보고 낭북협력기금을 활용, 북측이 주장한 ‘미수금’을 이날 지급했다. 북한은 4월분 임금 120만 달러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협의 키로 했다.

우리 측이 요구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 같은 추후협의를 위해 정부는 남북간 단절된 판문점 체널과 군 통신선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전원 귀환 이뤄짐에 따라 사후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단전·단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남도 주먹구구식 행정 잇단 제동

도의회, 재해 우심농지 매입 등 2건 부결

朴지사 역점사업 엉터리 설명에 의원 반발

전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잇따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76회 본회의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 우심농지 매입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2건을 부결했다.

농지 매입은 진도군 지산면 송호리 일대 농지 17만㎡를 25억원의 도비를 들여 사업이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찾은 태풍으로 바닷물을 머금은 바람이 농을 덮쳐 이삭이 죽어가며 변하는 백수 피해를 입는 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예산을 들여 농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아예 땅을 사들이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만 “다른 백수 피해 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도·해남·고흥 등 백수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피해 농지 도비 구입’을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라 수 있다 것이다.

또 전남도는 이 부지를 사업화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의회는 “진도항 개발 사업의 준설로 투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이 농지에 조성되는 진도항 배후부지 개발과 방포림 조성·무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흙을 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설로 투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 농지가 진도항 2단계 사업·배후부지 개발과 박종영 전남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기(武器) 박물관 건립·방포림 조성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급히 구입해야 하는 땅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비 223억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1단계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35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2단계 사업은 준설로 투기장이 없어 끌어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이 부지를 사업화로 준설로 투기장으로 활용, 국고를 원활하게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 농지에 조성되는 진도항 배후부지 개발과 방포림 조성·무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흙을 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설로 투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실·국간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적극성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요구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주먹구구식 행정이 잇단 제동을 당한 가운데, 전남도는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전남도 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시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 할 수 있다. 응시자는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전남도 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 할 수 있다. 응시자는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전남도 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취임 이후 첫 4박6일간의 미국 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시장, 6~13일 美·日 투자유치

서승환 교통장관 만나
지역현안 지원 요청도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통상진흥지원단이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한다.

강 시장 등은 6일 LA에서 세계적인 타이틀 시퀀스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로그 플랫폼’사와 문화콘텐츠 물량 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뉴욕, 일본 도쿄 등지에서 광주 광산업체의 LED 조명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및 수출협약 협약 활동을 펼친다.

또 세계 최고의 광학 기술을 보유한 베크만레이저연구소 등을 차세대 신산업인 광의료 및 광학 관련 분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김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협약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의 광학 기술을 보유한 베크만레이저연구소 등을 차세대 신산업인 광의료 및 광학 관련 분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김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협약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천과 융봉천, 서방천 등 하천의 기능 회복과 생태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비 174억원 지원과 함께 광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15년 1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김포 항공노선의 기

능이 유명무실해지고,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제선 이용의 편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광주~인천 경기선으로 변경·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X 광주역 진입방안에 대해서는 광주 송정역을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대로 광주의 거점역으로 운영하고 지역민의 의견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진입하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수송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출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속한 승인과 국비 20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전선 전철화 조기화 공과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상무지구~첨단단지 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서승환 장관은 광주~인천 간 직행로 개설과 관련, 직행로 개설 전에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수색역까지 광주~인천 간 3시간10분이 소요되며, 오는 2014년말 KTX가 완전 개통되면 인천~광주송정 간 2시간10분 만에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운수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충포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화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금

상당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김정기29억 최저기20억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김정기29억 최저기20억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
198㎡ 김정기5억5천만 최저기3억8천만

▶영광을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김정기25억 최저기17억

단독주택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김정기4억3천만 최저기2억4천만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김정기2억 최저기1억4천만

공장 및 창고

▶광산구 유통동 평형단동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김정기26억 최저기15억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김정기94억 최저기11억

토지 매매

▶회순읍 연양리 지연지 1121㎡ 김정기4,600만 최저기3,200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김정기2억2천만
최저기1억2천만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